

2024 예일교회 목장운영법

1. 목장이란?

- 1) 교회에서 모이는 전체 모임에 대해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와 같은 모임이다 (행 2:41-47).
- 2)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 성전모임과 가정모임의 균형이 있어야 교회가 비상한다.

2. 목장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다섯 손가락)

1) 공동체 의식 (Community)	엄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 목장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마 18:20). 나 중심 보다 예수님 중심, 목원들 영혼구원과 영적성장이 목장의 핵심이다.
2) 복음전파 (Evangelism)	검지는 방향이다. 목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곳이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관계전도의 교두보이다. 몸의 건강한 세포가 증식하는 것처럼 전도를 통해 분가하는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다 (행 2:47; 엡 4:11-12; 마 28:19-20).
3) 지도력 (Leadership)	중지 손가락은 목장의 리더를 의미한다. 목장의 생명력 여부는 목자의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목자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다(요 10:11-12). 목자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영적 아버지가 되어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며 살리는 일에 힘쓴다 (고전 4:15). 그리고 목자는 목장 안에서 예비 목자를 길러서 목장이 분가될 때를 준비한다.
4) 상호책임 (Accountability)	약지는 결혼 반지처럼 상대방에 대한 약속이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목장 안에서 성취한다(갈 6:2). 특히 성경통독과 153 기도를 목장에서 격려한다. 남을 살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5) 새신자 양육 (Equipping)	새끼 손가락은 목장 안에서 새가족이나 영적으로 어린 목원을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꾸 오고 싶은 목장 예배를 위한 4W

1) Welcome (환영과아이스브레이킹)	간단한 식사나 간식을 나누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한다. 이 때 감사의 이야기가 좋다.
2) Worship (찬양을 통한 경배)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 2-3 곡 정도를 목자나 아니면 목원 중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준비한다. 모든 목원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곡으로 선정한다.
3) Word(말씀)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나눈다. 주의할 것은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 초점을 둔다.
4) Work(사역)	목장 모임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 '다지세 기도' - 목원들의 기도제목을 붙잡고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기도.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 불신자의 영혼을 건지기 위한 합동작전.

4. 은혜로운 목장예배를 위한 인도법

- 1) 목장 예배를 철저히 준비한다. 그래야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이 있는 모임이 된다.
- 2) 목장 모임 전에 목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주 전화나 문자로 연락한다.
- 3) 목장 모임에서 불평이나 논쟁 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는 지혜롭게 넘어가야 한다. 이것은 언제나 상처를 남기며, 복음전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다음 목장 모임에 참석할 동기를 소멸한다.
- 4) 목장의 기본 방향은 목원의 믿음의 성장과 불신자를 전도하여 번식하는 재생산의 비전이다.
- 5) 목자는 목장 모임 후에는 목자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을지기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교구 담당 교역자는 이를 정리하여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결국 목자는 담임목사와 동역하는 담임목사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다.

1. Welcome

2. Worship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	2곡
	기도	말은이

3. Word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한 주간
삶에서 적용한 점

4. Work	통성기도	1.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2. '다지세' 기도-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기도 3. 성경일독, 153 기도, 40 기도, 사순절과 부활절	다같이
	헌금		다같이
	목장소식		인도자
	주기도		다같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요 9:1-12)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이다.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물었다. 예수님은 자기도 부모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이 하시는 일을 나 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땅에 ()을 뺀어 ()을 이 겨 그의 눈에 바르고 ()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이에 가서 씻 으니 눈이 밝아졌다.

1.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2-3절)

고통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라고 물어야 한다. 즉, 관심을 과거에 두지 말고 미래에 두어야 한다. 임산부의 고통은 미래에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한 것이다. 심지어 죄를 지어 감옥에 가도 출옥 후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선도하는 사람이 된다.

2.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6-7절).

- 치유 방법은 다양하다. 백부장의 하인에게는 말씀만으로 고치셨다. 나병환자는 환처에 손을 대고 고쳐주셨다. 그러나 본문의 맹인에게는 순종하기 훨씬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 그래도 그 맹인은 순종했다.
-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비교하면 내 생각이나 방법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막는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순교를

했지만, 베드로는 풀려 났다. 불공평하다고 또는 차별이라고 말 할 것 없다. 나의 자리에서 순종만 하면 된다.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다. 문제는 순종이다.

3. 눈 뜬 자의 사명(5, 17절)

- 예수님은 세상의 ()이시다(5절). 예수님은 Fanny J. Crosby의 영안을 뜨게 하셨다(찬 288장). 그리고 노예 상인 John Newton의 인생의 눈을 뜨게 하셨다(찬 305장). 그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삶의 목적이 바뀌라는 뜻이다. 눈을 뜨고도 걸 인처럼 행세를 해서 안 된다. 나의 사리사욕만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된다. 예수님을 ()라고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17절).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뜨고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된다.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도 모두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여 눈먼 사람과 같은 군중을 착취함에서 폭발한 사건이다. 니 카라과의 현재 정치적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 내 영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 나도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살기를 다짐하자.

[적용]

- 나는 지금 당하는 고난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 눈 뜬 자로서 나는 어떻게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광고]

- 목자 보고서를 목자가 작성하여 원본은 교구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카피는 마을지기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담임 목사의 가슴과 눈이 되어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 마을지기는 목자가 생명을 살리는 목장, 영적 성장과 변화가 있는 목장이 되게 잘 인도하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